

2016. 12. 19

삼진제약 탐방노트

제약/바이오

Analyst 이태영
02. 6098-6658
taeyoung.lee@meritz.co.kr

탐방일(12월 8일)

3분기, 4분기 실적 관련

-3분기 매출 611억원(9.5%, YoY), 영업이익 119억원(17.5%, YoY), 당기순이익 91억원(25.0%, YoY). 전 부문 창사 이래 최대 실적. '16.9월말 까지 누적 매출 기준 플래리스 346억원(비중 19.31%), 게보린 122억원(비중 6.79%), 뉴스타틴-A 89억원(비중 4.97%), 뉴토인 65억원(비중 3.63%) 등

-4분기실적 포함하여 올해 연간기준 10~11% 성장 가능. 분기의 경우 제품폐기, 특별상여 등이 연말에 몰려있어 이익 측면 다소 낮은 수준인 17~18%예상. 뉴스타틴-A/뉴스타틴-R이 합해서 작년 150억, 올해 180~190억 목표

신제품 관련, 성장 동력 관련

-플래리스 주 성분(Clopidogrel)과 아스피린 복합제 준비중. 올해 출시 계획이었으나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내년 중순 출시 예상. 추가로 비리어드의 제네릭 역시 대형품목이라 준비중

-향후 중기 성장계획은 수출 및 원료의약품 매출을 증가시켜 ETC매출 비중을 70%수준으로 낮추는 것임. 현재 비중 ETC(81%), OTC(15%), 기타(3%), 수출(1%). 이를 위한원료전용 오송공장 2013년도 증설 완료. 현재는 플래리스, 뉴스타틴-R등 주력 품목 생산중. 원료생산을 직접해서 발생하는 마진 개선은 크지 않다. 품질 개선을 위한 측면이 크다.

-장기 성장계획은 신약개발. 현재 판교 파스퇴르연구소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 마곡으로 이전할 계획. 토지비용 약 40억, 건설비용 약 300억 예상(구체적인 건설 계획 아직 안나왔음). 현재 연구인력 약 50명에서 장기적으로 두배 이상 확대 계획. 연구중인 파이프라인 대부분 전임상, 임상1상 중인데 더 많이 확대될 것. 연구소 완공 및 이전은 구체적 계획 아직 나와있지 않으나 '19년경이 될 듯

영업인력 및 매출구조

회사 전체 인원 664명 중 영업인력 약 300명. 비중은 서울의 경우 종합병원 4대 로컬의원 6정도. 지방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ETC 매출의 상당부분 종합병원에서 나온다. 매출의 큰 부분(51.3%)이 순환기내과(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 등)와 신경외과(뇌종양, 뇌경색, 뇌출혈, 디스크 등)에서나온다. 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제품 출시 준비중(플래리스/아스피린 복합제 등)

R&D

-R&D비용 연간 7%수준. 외용 AIDS치료제(미국) 및 경구용 안구건조증 치료제(국내) 임상 1상 진행 중. 모두 연구비 지원받아 진행중인 프로젝트. 에이즈치료제는 전임상 단계에서 L/O하여 해당 회사가 개발비 전액 부담 중

-인천대학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연구 협약 맺고 있음. 현재는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단계이며, 아직 License In 계약단계는 없음

Q1. 올해 배당 계획은?

600원 이상 가능하리라 본다.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700원이 넘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Q2. 차입금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산업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건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낮은 차입금 수준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보수적 운영방침 가지고 있다. 다만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오송공장 증설, 자사주 매입 등 대내외적 이슈 때문에 차입금이 증가 해왔던 것. 이를 정상화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Q3. 플래리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 회사에서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성공 요인은?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플라빅스를 대체할 만한 유력한 신약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향후 3~4년까지는 큰 무리 없을거라고 판단한다. 시장에 경쟁품목이 90개정도 있는데 그중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다른 품목보다는 성장성이 더 좋다. 매년 1%씩은 꾸준히 점유율을 올려나가고 있다.

-플래리스가 오리지널에 대적할 만큼 성장한 이유로는 1)원료의 국산화를 통한 품질 개선 적극 홍보, 2)'07년 출시당시 공격적 특허 공략 포지션을 취한 덕에 퍼스트제네릭 지위 확보, 3)주요 경쟁 제네릭사의 리베이트 이슈에 의한 반사이익 등이 있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6년 1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6년 12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태영)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